

# 東亞細亞系 美國人の 社會經濟的 地位와 教育的 成就

李 容 淑

〈韓國教育開發院〉

## I. 서 론

1903년에서 1905년 사이에 7,226명이 하와이로 이민간 이래 미국에서의 한국인의 숫자는 큰 증가가 없어, 1930년에도 8,321명에 불과했다. 6·25 이후에는 1950년부터 1965년 사이에 13,797명의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얻는 등 어느 정도의 인구증가가 있었으나, 한국계 미국인의 존재가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끌 정도로 수적인 증가를 하게 된 것은 1965년 제정된 새 이민법(Immigration Act)이 효력을 발생한 1968년도부터였다(Lee, 1984).

미국 센서스에 의하면 한국계 미국인의 숫자는 1970년에 70,198명, 1980년에는 357,393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을 했다. 아직은 중국계나 일본계의 반정도 뿐이 안되는 숫자이지만, 이제 한국계도 미국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중국계는 1860년에 이미 그 숫자가 34,933명에 달했을 정도로 긴 이민사를 갖고 있다. 중국계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 집단이 될 정도로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백인들의(특히 하층계급) 중국계에 대한 감정은 매우 악화되었다. 또한 남자들만 이민 와서 차이나타운에 밀집해 살던 중국인들의 비정상적이고 더러운 생활과, 그들의 상이한 문화 등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이미지는 매우 나쁜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정책들이 실시되었고, 1882년에는 더 이상의 중국 이민을 아예 금지시켰다. 그러나 하와이로의 이민은 계속되었으며, 1940년 미국의 중국 인구는 모두 10만명이 넘었다.

제 2차 대전중의 중국과 미국의 동맹으로 인하여 다시 이민이 재개되면서 중국계 미국인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1960년에는 237,292명에 이르렀다. 1965년의 개방적인 이민법 이후에는 대만·홍콩과 광둥지방을 중심으로한 이민은 더욱 큰 규모로 계속되어 1980년의 중국계 인구는 812,178명이나 된다.

이처럼 중국계는 이민은 시기뿐만 아니라 이민전의 생활여건이 크게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일본계에 비해서 그 구성원들의 교육적 배경이나 미국 문화에의 동화 정도가 상당히 다양하다. 또한 이민 초기부터 시작된 백인들의 중국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상처는 아직까지도 다 지워지지 않아서, 중국계는 동아시아계 중에서 가장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다. (상계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중국인의 이민이 중단되자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18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인의 이민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하와이에서 또한 일본 농민들의 대규모 이민이 진행되었으므로, 1920년의 일본계 인구는 모두 22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1924년에 아시아계의 이민을 금지하는 이민법(Exclusion Law)이 통과되자, 일본인의 이민도 중단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소규모로 계속된 이민과 인구의 자연증가로 인해 1960년의 일본계 인구는 중국계의 두배 가까운 464,332명에 달했다. 미국과 경쟁할 정도의 선진국으로 성장한 일본에서는 1965년의 개방적인 이민법 이후에도 한국이나 중국같이 대규모 이민을 보내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한국 이민이 24만명, 중국 이민이 19만명 정도나 되었던 것에 비해, 일본 이민은 10만명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1970년까지 중국계보다 인구가 많던 일본계는 1980년에는 중국계보다 적은 716,331명의 인구를 갖고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세계 열강으로 부상했던 일본에서는 1870년대에 이미 대중교육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본 이민들은 주로 하층계급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중국계 이민보다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중국계와는 달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 집단이 된 적이 없었으며, 도시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집단 거주하는 대신 가족단위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했을뿐 아니라, 농업에서의 그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차별의 표적이 될 기회가 적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와는 달리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차별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잘사는 강력한 나라라는 사실 자체가 미국에서의 일본계의 이미지를 좋게 해주었다. (상계서)

일본계 역시 많은 차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상의 이유로 인해 그들은 2차대전중을 제외하고는 중국계보다는 훨씬 나은 대우를 받았다. 예를들어 20세기초에 동아시아계가 가장 많이 살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계는 별도의 중국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던데 반해서, 일본계는 백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현재에도 일본계는 아시아계 미국인 중에서 가장 차별을 적게 받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남아 있다. 한국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1968년 이후의 이민이며, 이들은 주로 교육수준이 높은 중류층 출신이므로, 일본계보다는 못해도 중국계보다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다. (상계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기 다른 이민사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중국·일본계 미국인이지만, 이들은 교육적으로 성공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다른 소수민족보다는 훨씬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2차대전 이전까지 흑인 이상으로 차별을 받아왔던 동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러한 성공은 미국에서 매우 주목을 받고 있으

며, 특히 그들의 경제적 성공은 과대평가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이룩해 놓은 만큼의 성공에 안주할 수는 없는 것이 동아시아계 미국인의 입장이다. 그들이 교육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 많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성공만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들이 현재 미국에서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국의 사회구조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알아야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 III. 본 론

#### 1. 모범적인 소수민족이라는 미신

1970년대 이래 미국의 매스컴들은 동아시아계(한국·일본·중국계) 미국인들의 경제적 성공을 상당히 강조하여 왔다(Chicago Tribune, 1982; L.A. Times, 1985; Newsweek, 1982, 1984; U.S. News and World Report, 1971). 따라서 동아시아계에게는 모범적인 소수민족(model minority)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성공적인 집단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Moulton, 1978;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1980), 이로 인해 최근에는 흑인이나 백인 노동자들의 질서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시아계 미국인(앞으로는 동아시아계라고 칭함)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증거로서 자주 제시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통계자료이다: 1)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계의 가구당 평균수입은 백인가구의 평균수입보다 높다(Miller, 1976; Suzuki, 1980; Vernon, 1982); 2) 동아시아계의 실업률은 미국 평균보다 낮다(Moulton, 1978); 3) 동아시아계는 백인보다 전문·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1980); 4) 동아시아계는 백인보다 화이트 칼라 직종(white collar job)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와같은 통계자료가 반드시 동아시아계가 백인보다 높거나 동등한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첫째, 동아시아계가 백인보다 높은 가구당 평균수입을 갖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 동아시아계는 대부분 임금수준과 생활비가 비싼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다(Moulton, 1978); 2) 백인보다 더 높은 비율의 동아시아계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동아시아계는 가구당 평균 경제활동 가족원의 숫자가 더 많다(Kim, 1980; Moulton, 1978; Ryu, 1977); 3) 동아시아계의 노동시간은 백인보다 길다(Kim, 1981; Macaranas, 1979); 4) 동아시아계의 교육수준은 백인보다 높다(Lee, 1984).

따라서 동아시아계가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내에서 같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끼리의 단위시간당 소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일단

교육수준이나 노동시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같은 대도시권(S.M.S.A.) 내에서 남자의 개인 수입만을 비교해 보아도 동아시아계가 백인보다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해진다.

〈표 1〉 소득을 가진 16세이상 남자의 연간 개인소득(\$)중앙값(median, 1969)

대 도시 권	한 국 계	중 국 계	일 본 계	백 인	흑 인
시 카 고	—	5,101	8,573	8,741	6,217
호 늘 른 루	8,510	8,114	8,252	6,210	—
로 스 앤 젤 리 스	6,512	5,916	7,890	8,138	5,752
뉴 욱	8,220	4,352	8,339	8,092	5,667
샌 프 란 시 스 코	—	5,269	7,709	8,545	5,828

출처 : Moulto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Asian-American Families in Five Major SMSA'S, 1978.*

5개의 대도시권 중에서 동아시아계가 백인보다 높은 평균소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인구비례나 정치적인 힘으로 보아 아시아계가 주류를 이루는 호놀룰루 지역 뿐이다. 뉴욕에서는 한국계와 일본계가 백인보다 약간 높은 소득을 갖고 있지만, 이는 이곳에 거주하는 한국계와 일본계의 숫자가 비교적 적고, 이들의 교육수준이 높으며, 이곳에 일본계와 한국계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Bernardo, 1981).

기타 지역에서 일본계는 그런대로 백인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 소득을 갖고 있으나, 중국계의 경우에는 전체의  $\frac{1}{3}$  이상이 거주하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은 물론 흑인보다도 소득수준이 훨씬 낮은 형편이다. 한국계의 경우도 그들이 가장 많이 몰려사는 로스앤젤리스 지역에서 백인보다 \$1,600이상 낮은 소득을 갖고 있다.

둘째, 동아시아계의 낮은 실업률은 반드시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가 갖고 있는 유교문화는 근면(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노는 것(실업)은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긴다. 따라서 동아시아계는 아무리 조건이 나쁜 취업이라도 실업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Moulton, 1978). 또한 동아시아계는 같이 몰려사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집단내에서의 취업(대개 임금도 낮고,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실업율을 줄이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계가 백인보다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백인과 비슷하며, 가장 임금이 낮은 직업(농업, 노동, 서비스직, 가사노동보조원)에 종사하는 비율은 백인보다 높다(표 2참조).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계는 같은 행정·관리직 중에서도 지위가 낮은 직종에만 주로 채용되어 왔다. 예를들어 Cabezas와 Yee가 1977년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대도시권(S.M.S.A.)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동아시아계가 인구비례 이상으로 채용된 관리직 분야는 요식업, 숙박업,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제외한 통신서비스(communication service)의 세가지 뿐이었다(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1980).

〈표 2〉 16세이상 남·녀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1970

직	종	중	국	계	일	본	계	백	인
전문·기술직									
남	자	28.9			21.4			14.3	
여	자	19.4			15.9			15.9	
행정·관리직									
남	자	11.4			11.7			11.7	
여	자	3.8			3.8			3.8	
가장 임금이 낮은 4가지 직업(농업·노동·서비스직·가사노동보조원)									
남	자	28.0			20.6			17.8	
여	자	16.1			23.7			20.1	

출처 :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Success of Asian Americans; Facts and Fiction*, 1980.

동아시아계가 중역급 간부직원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의 최고 수준 기업 50개의 인사담당 중역과의 면담결과(Tachiki 등, 1971: x)에 의하면, 50명중 2명만이 아시아계를 중역으로 채용하거나 승진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른 인사담당 중역들은 그 가능성조차도 거부했는데, 그 이유로 든 것은 동아시아계가 “비열하고 (sneaky)”, “공모를 잘하며 (conniving)”, “부정직한 (shifty)”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35명 (70%)의 중역은 경쟁적인 기업세계에서 고객들이 아시아계에게 갖고 있는 개인적인 편견을 무릅쓰고 그들을 중역으로 채용하는 모험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기술직에 있어서도 동아시아계가 진출하는 분야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예를들어 Weyl의 연구에 의하면 (Vernon, 1982) 1960년에 일본·중국계가 인구비례 이상으로 취업했던 전문·기술직은 대학교수, 교사, 엔지니어, 자연과학자, 내과 의사, 기술자 뿐이었다. 이들이 변호사, 판사, 목사가 되는 비율은 인구비례보다도 훨씬 낮았다. 동아시아계가 교사로 취업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 이외에는 이와같은 현상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같은 교육수준에서 비교할 때에는 동아시아계가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진출하는 비율이 백인은 물론 미국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낮다(표 3참조).

네째, 동아시아계가 화이트 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백인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

〈표 3〉 4년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문직과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 1970

집	단	여	자	남	자
중	국	계	0.7	1.1	
일	본	계	0.9	1.3	
미	국	전	1.0	1.5	

출처 :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Success of Asian-Americans, Facts and Fiction*, 1980.

만, 동아시아계는 화이트 칼라 중에서도 지위가 낮은 직종에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1973년에 대졸 출신의 중국계 미국인 가장 중 53%가 판매, 사무원, 서비스 계통 등 낮은 지위의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갖고 있었다(Macaranas, 1979).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에서 동아시아계가 어느 소수민족 보다는도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고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성공은 이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남보다 더 열심히 교육에 투자하고, 더 많은 가족원이 장시간 노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다음에는 동아시아계가 어느 정도 교육적인 성취를 이룩하고 있으며, 이들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교육적 성취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

(1) 교육적 성취

19세기말과 20세기초의 동아시아계 이민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이들은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며, 따라서 1930년도 이후로는 백인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해 왔다.

예를들어 1938년 미국인이 100명중 1명꼴로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미국본토의 한국 이민들은 10명중 1명꼴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Givens, 1939).\* 또한 1940년대초에 캘리포니아의 일본 이민 2세들의 평균 교육 연한은 백인의 10.1년 보다 훨씬 높은 12.2년에 이르

<표 4> 16세 이상 인구의 교육수준, 1970

성 별	집 단	교육연한 중앙값(median)	5년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
남 자	한 국 계	12.9*	5.6*
	중 국 계	12.6	9.6
	일 본 계	12.6	3.1
	백 인	12.1	4.8
	흑 인	10.2	13.7
	필 리 핀 계	11.9	16.1
여 자	한 국 계	12.9*	5.6*
	중 국 계	12.3	15.3
	일 본 계	12.4	3.8
	백 인	12.1	4.1
	흑 인	10.6	9.5
	필 리 핀 계	12.6	7.3

\* 한국계의 경우 남·녀 별개의 통계치가 없음.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Subject Reports: Japanese, Chinese, and Filipinos in the United States, 1973*; *Subject Reports: Negro Population, 1973*.

\* 1930년 현재 미국본토에 거주한 한국이민의 숫자는 1,860명에 불과했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Population General Report—Statistics by Subjects, 1983*)

〈표 5〉 학교 졸업율

성별	집단	고 등 학 교*			대 학 교**		
		1960	1970	1976	1960	1970	1976
남 자	중 국 계	84	90	88	49	58	60
	일 본 계	89	94	98	35	39	53
	백 인	69	83	87	20	22	34
	흑 인	41	59	74	04	06	11
	필 리 핀 계	81	77	81	19	28	34
여 자	중 국 계	82	88	90	26	42	44
	일 본 계	84	94	99	13	31	35
	백 인	70	82	86	09	14	22
	흑 인	42	62	74	06	08	11
	필 리 핀 계	76	84	78	16	50***	51***

\* 20세에서 24세 사이인 사람중에서 12년이상 학교를 다닌 사람의 비율

\*\* 25세에서 29세 사이인 사람중에서 4년이상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

\*\*\* 필리핀계 여자의 경우에는 이 연령층에 이민은 간호원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학 졸업율이 이처럼 높다.

출처 :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Social Indicators for Equality for Minority and Women*, 1978.

렸다(Maloney in Vernon, 1982).

1970년에 이르러서도 동아시아계는 5년미만의 교육만 받은 이민 1세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이나 다른 소수민족보다 높은 교육 연한 중앙값을 갖고 있다. (표 4참조) 20대의 젊은 사람들만 비교할 때에는 동아시아계와 다른 소수민족과의 교육수준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표 5)를 보면 동아시아계 젊은이들은 고등학교졸업률이나 대학교 졸업률에 있어서 백인이나 다른 소수민족 집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특히 대학교 졸업률에 있어서는 중국계의 경우 1960년에 이미 백인의 두배가 넘었고, 이런 격차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일본계의 대학 졸업률도 백인의 두 배 가깝게 유지되어 왔다.

흥미있는 사실은 대학 졸업률에 있어서는 중국계가, 고등학교 졸업률에 있어서는 일본계가 가장 높다는 점이다. 특히 1976년에는 거의 모든 일본계 젊은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반면, 대학교 졸업률이 60%에 이르는 중국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비율이 12%나 된다. 5년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일본계가 훨씬 낮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표 4), 일본계는 중국계보다 훨씬 동질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에서는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대규모 미국이민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중국계의 경우에는 아직도 중공의 광둥지방과 홍콩에서 대규모 이민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중에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다음 절 참조).

동아시아계의 교육열은 대학교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1976년 현재 미국 인구의 1.6%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계가 1977~1978학년도에 수여된 박사학위의 7.8%를 받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1980). 박사학위를 받는 아시아계 중의

대다수가 동아시아계임을 감안하면, 동아시아계는 인구비례보다 다섯배가 훨씬 넘는 박사 학위 취득률을 갖고 있는 셈이다.

동아시아계는 교육수준에 있어서뿐 아니라 학업성적에 있어서도 백인들을 앞지르고 있으며, 성적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1920~30년대의 연구결과들(Strong, 1934; Vernon, 1982)을 살펴보면, 동아시아계는 어학계통의 시험에 있어서는 백인보다 성적이 떨어졌고, 기타 분야에서는 백인과 비슷한 성적을 얻고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동아시아계는 어학분야에서도 백인보다 높은 성적을 얻기 시작했다(Vernon, 1982). 1972~1973학년에 미국 전국의 918개 학교 4~6학년 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Metropolitan Achievement Test) 결과에 의하면 아시아계는 읽기 성적과 I.Q.에 있어서 백인을 약간 앞지르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1977).

1979~1980학년에 실시한 California Assessment Program은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3학년·6학년 학생중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모국어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인 학생들(즉 이민 제 2세대)의 성적을 각기 별개로 취급했기 때문에, 한국·중국·일본계 학생들의 성적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표 6참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중국·일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매우 비슷하다. 이들의 성적은 읽기, 짓기/쓰기(written language), 수학에서 모두 영어만 사용하거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성적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같은 아시아계인 필리핀이나 베트남어 사용 학생의 성적보다도 높다. 주 전체의 평균이 100점 만점으로 보아 39~48점에 불과한데 비해서, 한국·중국·일본어 사용 학생들의 평균성적은 82점에서 98점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표 6〉 캘리포니아주 국민학생들의 사용언어별 기초실력(basic skills) 백분위수(state percentile), 1979~1980.

사용언어별 집단	읽기	기	쓰기(written language)	수	학
	3학년	6학년	3학년	3학년	6학년
주 전 체	44	39	45	46	48
영 어 단 사 용	56	53	57	55	57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영어가 유창한 학생전체	28	17	27	33	28
한 국 어 사 용	90	82	88	96	92
중 국 어 사 용	94	86	92	98	96
일 본 어 사 용	93	89	92	96	94
필 리 핀 방 언 사 용	81	45	83	83	66
베 트 남 어 사 용	71	49	63	82	85
스 페 인 어 사 용	21	10	20	24	14
기 타	63	35	66	71	60

출처 : The California Assessment Program, *Student Achievement in California School: 1979~1980; Survey of Basic Skills, Grade 3: 1980; Interpretative Supplement to the Report on the Survey of Basic Skills, Grade 6: 1980.*



동아시아계의 높은 성적은 국민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동아시아계는 S.A.T.시험(전국적인 학력적성고사로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학 사정 자료로 쓰고 있다)에서도 매우 높은 성적을 내고 있다. 1981년의 시험결과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의 한국태생 학생중 66%와 일본 태생 학생중 68%가 수학에서 600점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Time, 1983). 전국표준(national norm)이 467점이고, 모든 아시아계 학생의 표준성적이 513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성적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한국어·중국어·일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 또한 대부분 동아시아에서 출생한 후 미국에 이민간 학생들이므로, <표 6>이나 위의 연구결과는 동아시아계 중에서도 미국 태생이 아닌 학생들(영어에 문제가 없는 경우)의 성적이 가장 좋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집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한 Peng등(1984)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아시아계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미국으로 이민간지 6~10년 된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거주한지 오래될수록 동아시아계 학생들의 학업성

<표 7> 25세~59세 남자의 연간 개인소득(\$) 중앙값(median), 1969

대 도시 권	교육 수준	중 국 계	일 본 계	백 인
시 카 고	고등학교 중퇴 이하	6,000	9,500	9,329
	고졸~3년간의 대학교육	6,500	9,333	10,904
	4년 이상의 대학교육	9,500	10,500	14,408
	*총 소득차	3,500	1,000	5,079
호 늘 른 루	고등학교 중퇴 이하	9,250	8,722	9,000
	고졸~3년간의 대학교육	10,778	9,700	8,875
	4년 이상의 대학교육	14,000	12,100	11,500
	*총 소득차	4,750	3,400	2,500
로스엔젤레스	고등학교 중퇴 이하	5,000	7,458	8,766
	고졸~3년간의 대학교육	7,833	9,818	10,465
	4년 이상의 대학교육	11,000	12,889	14,311
	*총 소득차	6,000	5,431	5,545
뉴 욕	고등학교 중퇴 이하	4,803	4,750	8,640
	고졸~3년간의 대학교육	6,571	6,500	10,444
	4년 이상의 대학교육	10,437	11,625	14,311
	*총 소득차	5,634	6,875	6,084
샌프란시스코	고등학교 중퇴 이하	5,542	8,250	9,047
	고졸~3년간의 대학교육	8,881	9,500	10,687
	4년 이상의 대학교육	11,167	12,111	13,081
	*총 소득차	5,625	3,861	4,034

출처: Moulto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Asian-American Families in Five Major SMSA'S*, 1978.

적 유형이 백인 학생과 비슷해지기 때문인 것 같다(Kitano, 1971; Lee, 1984).

(2) 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아시아계가 교육수준에 있어서나 학업성취에 있어서 백인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와같은 교육적 성취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는가?

동아시아계는 교육으로부터 백인보다 훨씬 적은 절대적 소득보상(absolute income return from education)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계는 같은 교육수준을 가진 백인보다 훨씬 적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표 7>을 보면 호놀룰루를 제외한 대도시권에서 동아시아계는 같은 교육수준을 가진 백인보다 훨씬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예를들어 대졸 이상의 경우 소득의 차이는 지역에 따라서 \$970에서부터 \$4,908까지 나고 있다.

이와같은 소득의 차이는 동아시아계 미국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 1 세 이민들이 가진 기술(skill)의 국제전이도(international transferability)가 낮다는 것(Chiswick, 1980)과 이들의 영어실력의 부족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인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미국태생이 아닌 중국계와 일본계 미국인은 역시 미국태생이 아닌 백인보다 교육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상계서)

같은 시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동아시아계 이민들과 유럽계 이민들의 소득과 직업을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은 더 분명히 드러난다(표 8참조).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와 중국계 이민들은 같은 시기에 이주한 유럽계 이민보다 고

<표 8>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교육, 소득, 직업 비교, 1980

		한 국 계	중 국 계	유 럽 계	미 국 전 계
교육수준 :	5년 이하의 교육	4.2%	15.8%	11.7%	3.6%
25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57.4%	59.7%	60.4%	66.5%
인구중 비율	4년 이상의 대학교육	31.6%	27.6%	20.4%	16.2%
1979년의 소득중앙값 (median)	소득을 가진 15세 이상의 남자	\$ 13,722	\$ 10,794	\$ 15,976	\$ 15,124
	연간 전업취업한 15세 이상의 남자	\$ 18,932	\$ 15,121	\$ 20,399	\$ 20,597
16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분포	전 문 직	9.0	10.1	10.0	10.5
	중역, 행정, 관리직	11.8	11.4	12.7	12.3
	기 술 직	3.5	5.0	3.3	3.0
	판 매 직	13.9	6.1	6.6	10.0
	행정보조직(사무원포함)	8.8	9.5	9.4	17.3
	서비스직(경비, 가사 노동자 제외)	17.2	29.5	14.9	10.8
	정밀생산, 수공업, 수리	10.9	6.0	15.1	12.9
	공원(기계공·조립공·검사원)	19.4	18.1	18.3	9.3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Detailed Population Characteristics: United States Summary*, 1984.

육수준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1,467 내지 \$5,278이나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동아시아계 이민들과 달리 유럽 이민들은 미국 평균과 비슷한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높은 중역·행정·관리직과 전문직, 그리고 소득이 높은 정밀 생산·수공업·수리직에 종사하는 동아시아계 취업자의 비율은 유럽계 취업자보다 낮으며, 반면에 사회적 지위가 낮은 판매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동아시아계가 더 높다.

동아시아계는 이처럼 교육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보상이 백인보다 훨씬 적은데, 무엇때문에 백인보다 열심히 교육에 투자하는 것일까? 교육에 대한 절대적 소득보상이 백인보다 낮지만 중국계보다는 높은 흑인들의 경우에는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이라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Ogbu, 1974; 1978). 동아시아계와 흑인의 이런 행동의 차이는 이들이 미국의 지배집단과 가져왔던 문화적·사회구조적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만 설명될 수 있겠다.

### 3. 동아시아계의 높은 교육적 성취에 대한 문화적·사회구조적 설명

노예로서 미국에 끌려왔던 흑인들은 그들 문화의 근원지인 아프리카의 부족사회에서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주로 가족으로부터 받았으며, 집단적인 교육은 성년식등을 통해서 단기간 받았을 뿐이다(이광규·김영찬, 1974). 그들에게는 인격적 성장이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학문과 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전통은 없었다. 또한 그들은 미국에서 백인 문화에 동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중류문화에 동화한 것이 아니라, 노예경험과 그후에도 여러세대에 걸쳐 계속된 차별경험을 통해서 백인문화에 종속적이면서도 천민계급(outcaste)적인 하부문화(subculture)를 발달시켜 왔다(Van Den Berghe, 1973). 따라서 교육에의 투자가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지위향상을 약속해준 경험이 별로 없는 미국 흑인들의 문화는 보상없는 교육이나 학문에 백인보다 훨씬 낮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반면에 동아시아계는 교육과 학문이 거의 유일한 출세의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보상과 관계없이도 사회적 지위의 향상, 인격적 성장, 가족의 명예 등을 위해서 학문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유교문화권 출신이다. 이들은 미국 이민후 2차대전 이전까지 천민계층(outcaste)에 속했으며, 교육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유교문화의 전통때문에 대학 졸업 후에도 과일 행상이나 세탁, 서비스직 등에 종사를 해야 했던 1930년대에도 많은 숫자가 대학에 진학했다. 그랬기 때문에 고급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2차대전중에 동아시아계는 전문·기술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그후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점차 향상되었다.

이와같은 2차대전 이후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으로 인해 동아시아계가 천민계급에 속했던 시기는 비교적 짧았고(보통 1~2세대), 또한 새로운 이민들이 동아시아로부터 계속 왔기 때문에 백인문화에 종속적인 천민계급적 하부문화를 발달시키는 대신에 동아시아의

문화유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아시아계는(특히 아직 유교문화의 전통을 크게 잃지 않고 있는 이민 1·2세대는) 학문과 교육에 대해서 백인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하와이에서는 같은 문화를 가진 동아시아계의 교육열이 훨씬 약해지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문화 이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 또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와이에서는 동아시아계의 교육에 대한 절대적 소득보상이 백인보다도 오히려 큰 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토의 동아시아계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학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다(Lee, 1982).

이런 동아시아계의 교육 투자 행위는 문화적 요인이나 교육에 대한 절대적 소득보상보다도 다른 경제적 요인들, 즉 교육에 대한 상대적 소득보상(relative income return from education)과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를 같이 고려 대상에 넣어야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대한 상대적 소득보상에 있어서는 동아시아계는 백인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태생 미국인의 1년간의 교육연한 증가에 대한 소득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1969년의 경우 중국계는 6.7%, 일본계는 6.3%, 백인은 7.2%, 흑인은 4.6%였다(Chiswick, 1980). 즉 동아시아계의 교육에 대한 상대적 소득보상은 흑인보다는 훨씬 크고, 백인보다는 약간 적다. 그러나 대도시권 내에서만 비교를 해보면(표 7참조) 시카고만 제외하고는 교육에 대한 상대적 소득보상(여기서는 대졸자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의 소득 차이)이 백인보다 동아시아계에게 오히려 더 크거나 비슷하게 나타난다.

동아시아계의 상대적 소득보상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저학력자의 소득이 백인은 물론 흑인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동아시아계는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낮은 소득밖에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면 동아시아계도 백인 고졸자 정도의 소득은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학력을 가진 백인과의 소득격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동아시아계는 최저의 생활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 즉 동아시아계에게 있어서 대학교육은 부나 출세를 얻기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계 저학력자의 소득이 이처럼 낮은 것은 흑인과는 달리 그들이 받는 차별로 인해 철강산업과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블루칼라 직종에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을 택하지 않는 한 동아시아계 고졸자가(또는 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조립공이나 서비스업(청소, 웨이터, 주유소 급유원 등) 처럼 임금수준이 낮은 블루칼라 직종과 하급 사무직 뿐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 하더라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투자이다.

동아시아계 대졸자는 행정·관리·경영직이나 법률·정치 계통의 전문직에는 별로 진출을 못하지만, 비교적 차별이 적은 의약·과학·공학·컴퓨터 계통의 전문직에는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분야에서도 최상위직으로의 진급에 있어서는 동아시아계가 크게 차별을 받지만,

일단 이런 전문직에 종사를 하게 되면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계는 대학에서 아무 전공이나 선택할 수가 없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한된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학·약학·과학·공학·컴퓨터 등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로 동아시아계 학생들은 이런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Lee, 1984). 성적이 좋은 학생만이 이런 과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계는 성적에 있어서도 백인보다 높은 수준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

흑인들의 경우에는 대졸자들이 주로 진출하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에서는 받는 차별이 심한 대신에, 블루칼라 직업에서의 차별은 덜 받고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은 흑인들은 같은 교육수준의 동아시아계보다 교육에 대한 절대적 소득보상이 많은 대신, 흑인 전체의 교육에 대한 상대적 소득보상은 훨씬 적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고등교육에 대한 매력이 동아시아계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고등 교육에 대한 유인체제가 흑인들에게 적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열이 동아시아계보다 훨씬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같은 동아시아계 중에서도 강대국인 일본의 후광을 입어왔던 일본계는 중국계보다는 차별을 덜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계는 일본계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절대적 소득보상이 적지만, 상대적 소득보상은 약간 더 많다(Chiswick, 1980). 그렇다면, 고등학교 졸업률이 일본계보다 낮은 중국계의 대학 졸업률이 일본계보다 오히려 더 높아왔던 사실은(표 5참조) 이런 경제적 보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 같다.

이처럼 문화적으로나 사회구조적으로나 동아시아계는 백인이나 흑인보다 교육에 훨씬 높은 가치를 부여할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가치가 어떻게 실제로 높은 학교 성적으로 나타나는가? 부모들이 교육에 아무리 높은 가치를 둔다고 해도,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지 않으면 자녀들의 성적은 높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동아시아계는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데 있어서도 백인이나 흑인보다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Lee, 1984). 이는 이들의 문화적 특성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겠다.

흑인들은 아프리카의 부족 사회에서 노동 시간이 짧고 전쟁과 의례 등을 중시하는 수렵과 원시 농경생활을 해왔다(Boserup, 1970; Sahlins, 1973). 미국에서의 노예생활은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했지만 이는 스스로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노동이었기 때문에 미국 흑인들은 근면을 특히 중시하는 문화를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높고, 관개농업이 생활 기반이었던 동아시아에서는 온 가족이 협동하여 극도의 근면과 인내심으로 장시간 노동하며, 시기에 맞게 농사일을 해나가지 않으면서 생계유지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장시간의 공부로 과거시험에 붙어야만 출세할 수 있었던 상층계급 못지 않게, 농민들에게도 근면과 인내는 최고의 덕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모내기나 추수 등 가족들의 지속적인 협동이 절대시 되는 관개농업 지역에서 발

달한 유교문화가 가족간의 화목과 질서를 특히 강조한 것 또한 당연하다 하겠다.

가족간의 화목과 질서유지는 가족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편익은 희생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즉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괴롭더라도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고, 부모는 자식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편익은 희생하는 것이 유교사회에서의 이상적인 가족관계였다.

이와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계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높은 가치를 둘 뿐 아니라,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근면한 생활에도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즉 이들은 자녀의 성적뿐만 아니라 공부에 소비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백인이나 다른 소수민족 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 동아시아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상당한 인내심으로 노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는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의 공부를 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동아시아계 부모들은 평소에 장시간 힘든 일을 하면서, 이는 오로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백인이나 흑인 부모들과는 달리 스스로 즐기기 보다는 그들의 얼마 안되는 휴식시간의 대부분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부모들의 희생과 자녀들을 위한 시간의 사용으로 인해 동아시아계 부모들은 자녀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부모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부모에 대한 효도임을 인식하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부모들의 요구에 놀라울 정도로 잘 순종한다. 또한 그들은 근면에 가치를 부여하는 부모들로부터 어려서부터 시간을 절제 있게 사용하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장시간의 공부를 크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Lee, 1984).

이와같이 동아시아계의 문화는 그들로 하여금 교육에 높은 가치를 두게 할 뿐 아니라, 높은 가치를 높은 성적으로 실제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 III. 結 論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미국에서 동아시아계는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교육에 대한 투자와 한정된 분야로의 집중적인 진출로써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최선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동아시아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봄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동아시아계는 모범적 소수민족이라고 불리우지만, 중개인적 소수민족(middleman minority)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우고 있다(Kim, 1981, Kitano, 1976). 중개인적 소수민족은 사회구조의 상층에 있는 지배집단(majority 혹은 dominant group)과 하층에 있는 다른 소수민족들과의 중간에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한다. 그들은 경쟁력이나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소수민족보다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지배집단의 차별과 그들의 문화와

의 조합에 의해서 상한선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배집단과 같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한다(Blalock, 1967).

동아시아계가 현재 그들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과학·공학·의약·컴퓨터분야로의 집중적인 진출이라는 전략이 바로 그들을 중개인적 소수민족으로 만들고 있는 요인중 하나다. 동아시아계 한명 한명이 개인적인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약속하는 이런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그들 전체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직업들이 동아시아계에게 집단적인 권력을 부여해줄 가능성은 적다.

크건 작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은 행정·관리·경영직과 법률·정치계열의 전문직이다. 동아시아계는 다른 사람들을 정치·경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직업에 진출함으로써 집단적인 힘을 키우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운명이 관련된 정책결정에조차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동아시아계가 중개인적 소수민족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차별이 심하다는 이유로 권력을 부여하는 직업에의 진출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 유대인과 동아시아계는 모두 교육수준과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들이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정치적인 힘은 동아시아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하다. 물론 유대인들은 대부분 백인이므로 동아시아계보다는 차별을 적게 받는다는 점도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동아시아계 고학력자가 거의 모두 의학·과학·공학·컴퓨터 분야로 진출할 때, 유대인 고학력자들은 이런 분야 이외에 법률·경영·행정·관리·정치 분야로도 많이 진출함으로써, 개인의 지위 향상만이 아니라 집단 전체의 힘을 키우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계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주로 이공계통의 전공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경영·행정·관리·정치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써클활동이나 학교 행사에 활발히 참여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노는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사회적 인성을 키우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동아시아계 학생들은 공부와 음악레슨, 모국어의 수업 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은 매우 적다. 예를 들어서 시카고 근처의 2개 공립학교 6,7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아시아계 학생이 친구와 노는데 쓴 시간은 평균 주당 7.45시간으로 앵글로계 학생이 쓴 시간(13.55시간)의 반 정도 뿐이 안되었다. 반면에 이들이 TV시청에 쓴 시간은 15시간 정도로 비슷했다\*(Lee, 1984).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계가 백인보다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

\* 동아시아계 부모들은 대부분 장시간 집 밖에서 근무를 하므로, 자녀들의 시간 사용에 대한 감독을 전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들을 집안에 있게 할 수 있어도, 집에서 공부를 하는지 TV를 보는지를 감독하기는 어렵다.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부를 위해서 원만한 인성발달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공부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친구와 노는 시간이나 학교에서의 조직적인 활동에 참가하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TV시청 시간을 줄여야할 것이다.

동아시아계는 자녀들의 사회성이나 발표력의 발달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동아시아계 학생들은 학교에서 압전한 공부벌레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교사들은 그들에게 표현력이나 사회성의 발달을 요구하지 않는 이공계의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할 것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아시아계 부모들은 자녀들의 적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안전한 이공계로의 진출을 강요함으로써, 이공계가 적성에 맞지 않는 자녀들에게 신경증 증상까지 일으키게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상계서). 그러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나 동아시아계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나, 자녀들의 적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하겠다.

### References

- Bernado, Stephanie.  
1981 *The Ethnic Almanac*.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 Blalock, Hubert.  
1967 *Toward a Theory of Minority Group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 Boserup, Ester.  
1970 *Woma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St. Martin's Press
- Chiswick, Barry R.  
1980 Immigrant and Native-Born Men, Earnings and Earning Differentials, by Race and Ethnic Origin and Educational Attainment. *Monthly Labor Review*, October, 1980.
- Givens, Helen L.  
1939 *The Korean Community in Los Angeles County*. A Thesi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Kim, Bok-Lim C.  
1980 *The Korean-American Child at School and at Home: An Analysis of Interaction and Intervention through Groups*. A Project Report to 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Grant No. 90-C-1335(01).
- Kim, Ill-Soo.  
1981 *New Urban Immigrants: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tano, Harry H.L.  
1971a *The Remarkable Revolution of a Japanese Subculture*. In *Teaching Multicultural Populations: Five Heritages*. J.C. Stone and D.P. De Nevi, eds. New York: Van Nostrand and Reinhold Company.  
1971b *Sociopsychological Aspects of the Acculturation of Japanese in America*. In *Teaching*



- Multicultural Populations: Five Heritages*. J.C. Stone and D.P. De Nevi, ed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 1976 Japanese Americans: The Development of Middleman Minority. In *The Asian American: The Historical Experience*. N. Hundley, Jr., ed. pp.81-100. Santa Barbara: Clio Books.
- Lee Yong Sook
- 1982 Academic Success of Asian-Americans: Structural, Historical and Cultural Explanations. An unpublished qualifying paper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1984. A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n American and Anglo American Academic Achievement: An Ethnographic Study.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Northwestern University.
- Los Angeles Times.
- 1985 Asian Americans: Emphasis on Education Paying off. December 19, 1985.
- Macaranas, Federico H.
- 1979 Education and Income Inequality among Asian-Americans. ERIC Document ED 181097.
- Miller, Wayne C., et al.
- 1976 *A Comparative Bibliography for the Study of American Minoriti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Moulton, David M.
- 1978 The Socioeconomic Status of Asian-American Families in Five Major SMSAs: With Regard to the Relevance of Commonly Used Indicators of Economic Welfare. ERIC Document ED 190679.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 1977 Anchor Test Study: Fifth-Grade Reading Achievement as a Function of Selected School, Classroom, and Pupil Variabl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1980 Digest of Educational Statistics. Washington, D.C.: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Newsweek*.
- 1982 Asian Americans: "A Model Minority." December 6, 1982.
- 1984 A, Formula for Success. April 23, 1984.
- Ogbu, John U.
- 1974 *The Next Gener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Minority Education and Caste*. New York: Academic Press. Peng, Samuel S., Owings, Jeffrey A. and Fetters, William B.
- 1984 School Experiences and Performance of Asi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Paper S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 Ryu, Jai P.
- 1977 Koreans in America: A Demographic Analysis. In *The Korean Diaspora: Historical and Sociological Studies of Korean Immigration and Assimilation in North America*. H. Kim, ed. Santa Barbara: ABC-Clio, Inc.
- Sahlins, Marshall P.
- 1972 *Stone Age Economics*, Chicago: Aldine.
- Strong, E.K.

- 1934 *The Second Generation Japanese Proble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uzuki, Robert H.
- 1980 The Asian-American Family. In *Parenting in Multicultural Society*. M.D. Fantini and R. Cardenas, eds. New York: Longman.
- Tachiki, A., Wong, E., Odo, Franklin and Wong, B.
- 1971 *Roots: An Asian American Reaper*.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ime*.
- 1983 Confucian Work Ethic: Asian-born Students Head for the Head of the Class. March 28, 1983.
-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 1980 *Success of Asian Americans: Fact and Fic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U.S. News and World Report*.
- 1971 Success Story of One Minority Group in America. In *Roots: An Asian American Reader*. A. Tachiki *et al.*, eds.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Van Den Berghe, Pierre L.
- 1973 Pluralism. In *Handbook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J.J. Honingmann, ed.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 Vernon, Philip E.
- 1982 *The Abilities and Achievement of Orientals in North America*. New York: Academic Press.